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근 국정 감사에서 5·24 조처와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5·24 조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이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다. 5·24 조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역 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 지역 외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역을 제외한 남북 관계의 인적·물적 교류 전반을 중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처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후 최악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종교칼럼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처

남북 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중단시켰다.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고도화를 방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 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의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 대북 강경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속에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실패했다.

국정 감사에서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24 조처 해제는 대북 압박 제재라는 국제 공조에 역행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 공조의 균형을 속기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지 못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하지 못한 지난 10년의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미래를 열어 나가는 역사 발전의 물이해를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 발전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5·24 조처 내용 중에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치되는 부분들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

들은 탄력적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추진 동력의 근간이다.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한 집권 여당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연계된 '남북 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불허'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유명무실해졌다. 남북 교역 및 신규 투자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신속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물 점검 및 확인'을 위한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의 요구이다. 5·24 조처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기업 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지속적인 자산 점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기 사업에 합치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 첫 생산품이 출시되었다.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상징성이 담겨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북핵 문제와 분리되었지만 중단·재개의 과정에서는 연계되는 모습이다. 남과 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두 사업이 재개되고, 두 사업의 재개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혹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 속도에 한국이 맞추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남북 간에는 민족 분단이지만 북미 간에는 분단이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 간에는 155마일을 경계선으로 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북미 간은 1만km 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중요하다. 선순환은 발전적 선순환을 의미한다. 평균 신장 150cm의 아동 사회에서 160cm의 아동들의 성장을 멈추게 해서 안 된다. 140cm의 아동이 빨리 성장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속도가 빠르지 늦은지, 자기 검열이 요구된다.

“하심(下心)하란 말이오”



홍현
화순 용현사 주지스님

흘어져 있는 권력은 너무나 왜소하여 우리들은 한 표만큼의 권력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 흠어져 있는 '한 표의 권력'들을 모아서 덩치를 키워야 비로소 권력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정치인은 타인에게 '한 표의 권력'을 구걸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그렇게 키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한 표 권력을 구걸하는 정치인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 유권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선거철에 후보자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에게 당신의 '한 표 권력'을 달라고, 인사하고 약속하고 호소하는 것이 전부다.

아무리 '한 표의 권력'이 보잘 것 없지만 유권자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권력을 정치인에게 적선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남의 마음을 사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야 자신을 높일 수 있다. 하심(下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만큼 하심은 힘들다. 그래서 내 주머니 속의 '한 표의 권력'에 머리 숙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가까이 '한 표의 권력'을 내주는 것이다. 선거철의 정치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다.

는 또다른 사례는 명절날의 덕담이다. 학생 때면 공부는 잘하나, 대학 졸업하면 취직은 언제 하나, 취직하면 결혼은 언제 하나,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집은 장만했나, 애를 낳으면 하나는 외롭다 둘째는 언제 낳나... 이렇게 어른들의 잔소리 같은 덕담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어른들의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는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라는 어른 코스프레에 취한 나머지, '나'에 대한 보호막이 벗겨져 버린 결과이다. '나'이를 먹으면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격언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물론 애정이 없다면 잔소리도 없다. 사랑하기가 기대하고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해줄 것을 강요하기 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아랫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야 마땅하다. 지위가 높을수록 애정이 깊을수록, '나' 역시 공고해지고 커지기 마련이다.

하심이 힘든 건 '나'라는 놈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남'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남'이 있으니 '나'도 있고, '나'가 있으니 '남'도 있다. 그런데 '나'

는 '나'밖에 없다고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남'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면서도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나'를 추켜세우려 한다.

하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심이다. 자신을 낮추고 낮추다 보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경지, 즉 '나'가 사라진 경지에 이른다. 하심(下心)하면 무아(無我)에 이른다. 하심이 아발로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수행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모든 시민들에게 항상 겸손한 이유를 나 같은 일개 시민이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몸 배에 배어 있는 본임은 분명하다. 잠시 선 거절에만 머리를 숙이는 정치인과는 격이 다르다. 이 정도는 나도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서 하심을 배우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하심하란 말이오!” 은사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기고

황토현 전승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이상길
정읍시의회 의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에서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지난 14년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해 왔다.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과 난항을 거듭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학 관련 지역 기념일중 법정기념일로 선정해야 하는 타당성이 제일 높은 지역 기념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선정기준으로는 역사성(기념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의의), 상징성(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높은 기념일), 지역

참여도(기념일 관련 지역 지자체의 지원 현황 및 참여도, 동학관련 유적지, 기념사업, 자체 기념행사 추진 내용 등)를 제시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무장기포일), 부안군(백산기포일), 정읍시(황토현 전승일) 전주시(전주와악일)가 접수하고 지난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정읍 시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으로써 그간 쌓였던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불신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읍시의회도 이 같은 시민들의 뜻을 담아 문제부 공청회를 앞둔 지난 10일 의원 공동 발의로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1893년 11월 고부성을 점령하여 백성을 질탈한 탐리를 징벌하며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가 것 등을 약속하는 사발통문 계획을 세운 뒤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침략을 추구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져 한국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높은 뜻은 오늘의 시대정신의 뿌리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동학농민군이 규관과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서 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엄숙히 촉구한다.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군이 부패하고 무능한 위정자에 항거하며 봉기한 뒤 처음으로 맞이한 최초의 전투인 황토현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둬 혁명의 전국화를 이끈 승리의 날이며 혁명의 불길에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날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최초로 '갑오 동학혁명탑'이 1963년 황토현 전승지에 건립될 당시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가람 이병기)가 서술 퍼낸 공안 정국에서도 최초로 '혁명'이라 명시한 기념물을 세울 장소로 전국에서 정읍 황토현 전승지를 지목한 것은 동학농민 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 전승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정읍시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시설 30여 개가 산재해 있으며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에 51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동학선양사업 추진 매카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소재해 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혁명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확대되고 절정에 이르렀느냐는 점이다. 황토현 전승일은 최초 전투일, 최초 승전일이며, 정읍에 산재한 30여 곳의 동학농민 혁명정신 계승 시설, 국내 최초 전승탑, 51년간의 전승일 기념제 개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기념관 등이 명백한 증거와 뚜렷한 기준이 되고 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지저체간 갈등 확산을 끝내고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평화의 물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社說

눈치만 보다 투자도 일자리도 다 놓친 나주시

나주시가 눈치 보기 행정으로 인허가를 미루면서 2000억 원대의 LG화학 나주공장 증설 계획이 무산됐다. 공장 증설 계획 철회는 단순히 투자 무산에 그치고 않고 귀중한 신규 일자리 200개까지 날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LG화학은 나주공장에 짓기로 한 촉매 연구 개발센터 건립(700억 원)과 반도체 및 정작제품 제품 제조를 위한 차고형 공장 증설(1000억 원)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나주시에 공장 증설 계획을 제출했는데 나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적거리자 자진 철회한 것이다. 친환경 가소제 공장 증설(600억 원) 계획은 아직 신청서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다른 후보지를 모색하는 등 사실상 포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당초 대전에 있는 촉매공장을 나주로 이전, 여기에 연구소 기능을 더해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포기하고 충남으로 방향을 돌렸다. 나주에

투자하기로 한 2300억 원 가운데 1700억 원은 이미 물 건너갔으며 가소제 공장 투자도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투자 무산으로 당연히 신규 일자리 200개도 물거품이 됐다. 이번에 무산된 투자와 일자리 규모는 LG화학 나주공장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만약 투자가 성사됐다면 나주공장은 2022년 매출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나주시의 무소신 행정 탓에 투자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찬반 논란이 있던 했지만 공장 내 유유 부지를 활용해 시설을 증설하는 것인데도 나주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2~3개월이면 충분할 허가 문제를 질질 끌다 결국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가 최근 기업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 기업에 최대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더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 미적대지 말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광주를 찾아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이상 지체된 진상조사위 출범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그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은 온 국민이 높이 사고,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게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의 5·18 진상조사 위원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를 둘러싼 당내 이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가서 다시 점검해 보겠다,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18 진상조사위 위원은 9명으로 국회 의장이 1명, 여야가 각 4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출범 시한은 지난달

14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은 이미 추천을 마쳤지만 한국당이 자당 몫인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먼저 추천된 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해 진상조사위가 '개론발차'(開門發車)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편이다. 국회의장 추천 1명을 포함해 6명이 임명되면 위원회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번에도 위원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5·18 진상 규명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다. 한국당이 진정 쇄신을 원한다면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위원 추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단 하루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KIA 타이거즈의 가을은 너무나 짧았다. 천신만고 끝에 턱걸이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5위의 반란'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야구가 돌고 도는 스포츠라지만, 그래서 상위권 팀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하위권 팀이 언젠가는 큰일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2연패를 노리던 다펜딩 챔피언이 이렇게 무기력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시즌 시작 전 KIA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구단 감독들이 우승 1순위로 꼽을 만큼 막강해 보였다. 그러나 우승하고 다음 해 5위나 타이거즈는 초반부

가을 야구

언제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용광로 같은 팀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프로 야구 초창기의 타이거즈가 그랬다. 여덟 시즌 중 다섯 번을 우승한 1980년대, 네 번 우승한 90년대, 그들은 가을 야구의 무적이었다. 심지어 정규 리그 1위가 아닌 2·3위를 해야 플레이오프에서 적당히 몸을 풀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기가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호랑이들은 가을만 되면 필필 날았고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2009년 우승하고 다음 해 5위에 그치더니 지난해에 더 흔들렸다. 최형우가 중심을 잃은 타격은 파괴력을 보여 주지 못했고, 마운드에서 양현종과 핵터는 지난해처럼 압도적이지 못했으며, 불펜은 시즌 내내 불안했다. 또 3루수와 유격수의 백업 고민은 끝까지 수비의 발목을 잡았다.

탄탄한 전력을 갖춘 유지해야 강팀이다. 비록 때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승권 언저리에 머물며 베테랑들이 힘을 발휘하고, 또한 신인들이 신바람을 일으키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좋은 팀이다. 팬들은 순위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성적이 꾸준한 팀, 가을 야구에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체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